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 방안

1. 머리말

-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선 3기 도정운영 프로그램(2002.10)의 산업·관광 진흥분야 시책의 하나로 계룡산 지역에서 찬란하게 꽃피웠던 철화 분청사기¹⁾를 소재로 하여 도예촌²⁾을 조성할 예정으로서, 본 연구는 2004년도에 실시예정인 「철화 분청사기 도예³⁾타운 건설」 기본계획·설계에 필요한 선행연구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계룡산 지역의 도예 역사 및 철화 분청사기의 특징을 검토와 지역현황 및 잠재력 분석 하에 바람직한 도예촌 조성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계룡산지역의 도자 문화를 계승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2003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간적으로 첫째, 일본에 도자문화를 전파한 이삼평이 활동한 역사성이 있는 지역, 둘째, 자연경관·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주변 대도시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셋째, 기존 도예가들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어 도예촌 조성·운영에 유리한 지역, 넷째, 공주시 건설종합계획에 기 포함되어 있는 지역 등을 기준으로

-
- 1) 분청사기란 분장회청사기의 준말로써 1930년대 분장회청사기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유래. 분청사기는 태토(바탕흙)로 형태를 만든 후 백토를 입히고 이 백토면에 그리거나 새기거나 긁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양을 나타낸 다음 유약을 입히는 방법으로 제작되며, 그 제작시기는 고려 말부터 조선조 16세기 중엽까지다. 분청사기의 종류는 그 제작기법에 따라, 분청상감, 분청인화, 분청조화, 분청박지, 철화분청, 귀알분청, 담금분청 등 7가지로 나누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분청상감: 고려청자의 상감기법을 계승한 것 ② 분청인화: 도장과 같은 시문구로 문양을 찍어내는 방법 ③ 분청조화: 백토를 입히고 그 위에 문양을 선각한 것 ④ 분청박지: 조화문에서 시문과정을 한단계 더 거친 것으로 바탕의 백토를 긁어내어 문양만 백토로 남게 한 기법 ⑤ 철화분청: 백토를 입힌 후 철사안료로 문양을 그린 것 (철화분청가마는 충남 공주 계룡산 기슭에 분포되어 있음으로 계룡산 분청이라고도 함) ⑥ 귀알분청: 풀을 바를 때 사용하는 귀알이라는 도구로 백토를 입혀 귀알자국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기법 ⑦ 담금분청(분장분청): 백토물에 그릇표면을 담갔다가 꺼내어 구워내는 방식
 - 2) 도예촌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자 예술촌의 줄임말로써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이나 작가들이 모여서 형성한 촌으로서 창작 활동, 교류,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말한다.
 - 3) 도예란, 도자예술의 줄임말로 “흙과 불의 예술”이라 해석. 즉 흙을 재료로 하여 불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의 형태를 陶器藝術, 학술적으로는 “점토로 형태를 만들어 건조시킨 후 조성하여 완성하는 유형의 예술품”을 말한다.

로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하신리, 학봉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국내외 도예촌 현황분석, 대상지역의 물리·인문적 환경의 검토, 이용자 수요예측, 도입시설 검토, 사업추진주체 및 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의 수행에 있어 국내사례로는 이천, 강진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도예촌현황을 조사하였고, 국외사례인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 인터뷰 및 관련문헌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지와 관련된 현황분석은 현지답사, 사진촬영, 수치지도를 활용한 GIS분석 및 가용지 분석, 주민 및 방문객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발방향을 도출하였고 이용자 수요예측, 계층분석을 통한 도입기능 및 시설 규모의 산정, 도입 프로그램의 검토하였다.

2.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특징과 국내외 도예촌 조성 현황

2.1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특징

- 계룡산 분청사기는 1487년~1536년 약 130년 간 제작되었던 분청사기로서 철화 기법을 이용하여 독특한 무늬를 가진 분청사기이다. 재료상 특징으로는 다른 지방의 소성물과 쉽게 구별이 될 만큼 태토가 거칠고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성 후 투명한 유약밑에서 암자색으로 소지가 비친다.⁴⁾ 형태상 특징으로는 둔한 기형을 가지고 있으며, 문양상으로는 귀얄 자국과 자유스럽고 힘찬 필력의 철화문이 그려져 있다. 특히, 해학적인 문양과 생략의 효과로 당시대의 독특한 개성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대표적 작품을 제작한 가마⁶⁾로서 현재 학봉리 산22-1의 가마터가 사적 33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4) 이재황,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재료 연구 - 주변재료의 채굴과 실험을 중심으로 -, 도서출판 동해물과 백두산이, p9

5)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관요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화서 소속의 화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지방가마에서는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때 자체내에서 해결했을 것으로 본다.

6) 학봉리 모든 가마는 내화감을 사용하지 않고 기물의 바닥에 굵은 모래를 깔아 포개어 소성한 것이 많으며 가마벽의 녹은 상태로 보아 대략 1230℃ 이상 소성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림-1] 분청사기 철화어문병 [그림-2] 분청사기 철화당초문 항아리
 자료 <http://museum.go.kr> 자료 <http://www.gnedu.net>

2.2 국내 · 외 도예촌 조성 현황

- 국내에 계룡산 도예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도예촌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이천 및 강진도예촌을 현황을 다음과 같다. 먼저 두 도예촌 모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초기에는 수공업의 도자기 및 관련제품 생산으로 출발하여 9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의 도예촌에 관광 및 교육의 개념을 도입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규모면에서는 이천지역에 466개 업체(종사자수 996명)가 있으며, 강진에는 24개 업체(종사자수 77명)가 있다. 생산품목에 있어서는 이천은 청자에서 백자까지 전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강진은 청자를 주 생산품으로 하고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옛 도예촌을 구성하는 개개의 가옥에는 생산, 판매, 전시 등의 기능을 수용하고 있으며, 자기의 품질 및 마케팅 능력에 따라 수준의 차이가 심하였으며, 관리운영 측면에서 이천의 경우는 이천 민속도자기 사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판매, 전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강진은 군운영의 청자사업소와 민간도요로 운영되고 있는데 입지여건의 극복과 시장 확보가 당면과제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천 및 강진도예촌 모두 계획단위의 도예촌 및 관광지 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중에 있으며, 작품성 위주의 도기 생산 뿐만 아니라 자기 관련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국외지역에서 우리와 유사한 도예촌을 가지고 있는 곳은 가장 근접하여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이다. 조선으로부터 도자문화를 받아들인 일본은 규모 및 시장면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일본에 도자기 산업이 발달한 대표 지역으로는 큐슈지방의 사가현 지역의 아리따시와 이마리시⁷⁾를 들 수 있다. 도자산업의 규모,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은 순수 도자기에서 출발하여 산업재로까지 육성시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자산업으로 발전시켰으며, 현재는 관광문화 상품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관리·운영 측면에서 도예촌 정비의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현의 요업센터와 컨소시엄 및 아리따 요업대학과 연계하여 도자산업을 육성하고 있었다.⁸⁾
- 이러한 국내·외현황을 살펴본바 도예촌 조성 및 개발에 있어서 다음의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계룡산 지역의 특성·주제를 가지며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계획적 개발

-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분명 지역육성에 있어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자원 그 자체로서는 상품화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단일기능으로는 다양성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테마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성·복합성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예촌 내에 단기간에 많은 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존의 도자기관련 공장·판매점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과 함께 정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마을 자체를 “계룡산지역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숨쉬는 철화 분청사기 박물관”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관광개발 및 단계적 사업 투자

-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방문객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즉, 주변지역과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체험교육을 통하여 도자기 관련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관광시설의 특징상 초기 투

7) 아리따, 이마리의 도예촌 형성은 일본의 도조의 시조로 불리우는 조선도공 이삼평의 자기 제작을 시발로 시작되었다.

8) 산업자원부, 도자기 전문가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2002.2

자비가 많이 드는 반면, 회수기간은 길다는 속성이 있으므로, 대규모 시설 투자보다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3) 도예촌의 접근성 및 관광지간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양호한 접근성은 방문객 입장에서 볼 때, 도심·근린공원과 같은 느낌을 주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특히, 대상지역이 대전권 근교에 위치한 점, 주5일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 도심근린공원 관광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근성과 함께 관광 자원간의 연계성도 중요하다. 방문자 입장에서 측면에서는 한번의 여행에서 多施設을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계룡산국립공원, 유성온천지구, expo과학공원 등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관광자원간⁹⁾의 연계성 확보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주요한 요소이다.

(4) 도예촌 주변 지역주민·관계자의 의견 통합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운영

-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이해관계자간에 의견이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예촌 주변 지역주민 및 사업관계자의 지속적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운영의 아이디어 창출¹⁰⁾이 필요하다.

(5) 이벤트 및 소프트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운영을 통한 공간 활성화

- 하드웨어적 시설물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물 및 다양한 기능의 도입과 함께 이벤트의 획기적·지속적인 도입이 없는 한 조성 후 2~3년이 지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¹¹⁾ 따라서, 계절별, 월별 이벤트의 도입과 함께 시설물 운영에 대한 소프트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

9)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시설을 관람하는 등의 볼거리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느끼면서 맛있는 음식을 동시에 만끽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관광 측면만이 아니라 먹거리체험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0) 주제로서 지역 상품인 도자기에 집착하는 것은 확실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면 단조로운 주제로 흥미를 잃을 수 있다.

11) 손상락, 지역발전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3. 대상지 개발여건 분석

3.1 일반환경특성

1) 자연환경특성



(1) 위치·면적

-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위도 $36^{\circ}22' \sim 36^{\circ}24'$, 경도 $127^{\circ}13' \sim 127^{\circ}15'$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¹²⁾ 상신리, 하신리¹³⁾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상으로 상신리와 하신리는 10.4km^2 로서 반포면의 13.3%, 공주시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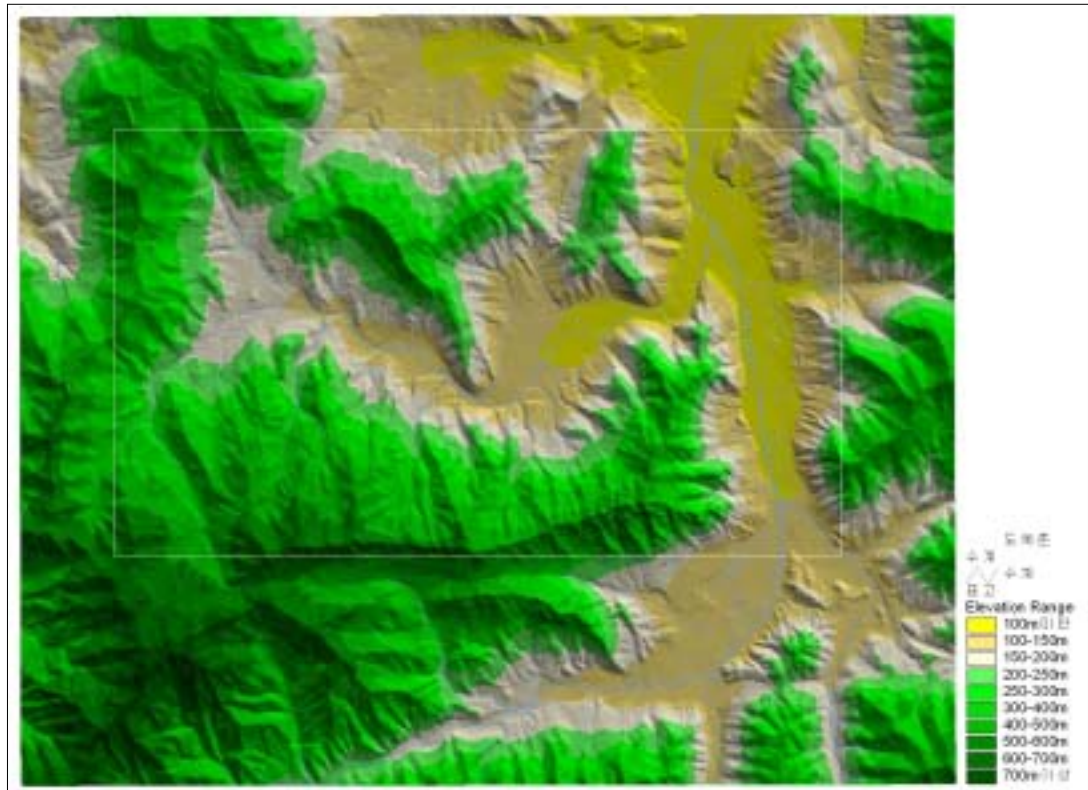
2) 표고

- 계룡산 줄기로 둘러싸여 있는 반포면 상하신리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높이는 772.64m 이고 최저 높이는 64.84m 이며, 상·하신리를 중심으로 한 대상지 내의 표고는 가장 높은 곳이 645.645m 이며 가장 낮은 곳이 표고 73.41m 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표고는 시설물 입지 및 개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활용가능성이 높은 표고 200m 이하의 면적은 $7,364\text{천m}^2$ 로 분석되었다.

12) 반포면은 공주시에서 종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대전광역시, 서쪽은 공주시 계룡면, 남쪽은 논산시, 북쪽은 공주시 장기면과 접해있다.

13)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상신이라 하고 반포면에 편입되었다. 예전에는 신소라고 불렀으며 그 뜻은 ‘깊고 큰 소(沼)’라는 뜻이다. 신소 위쪽은 상신리, 아래쪽을 하신리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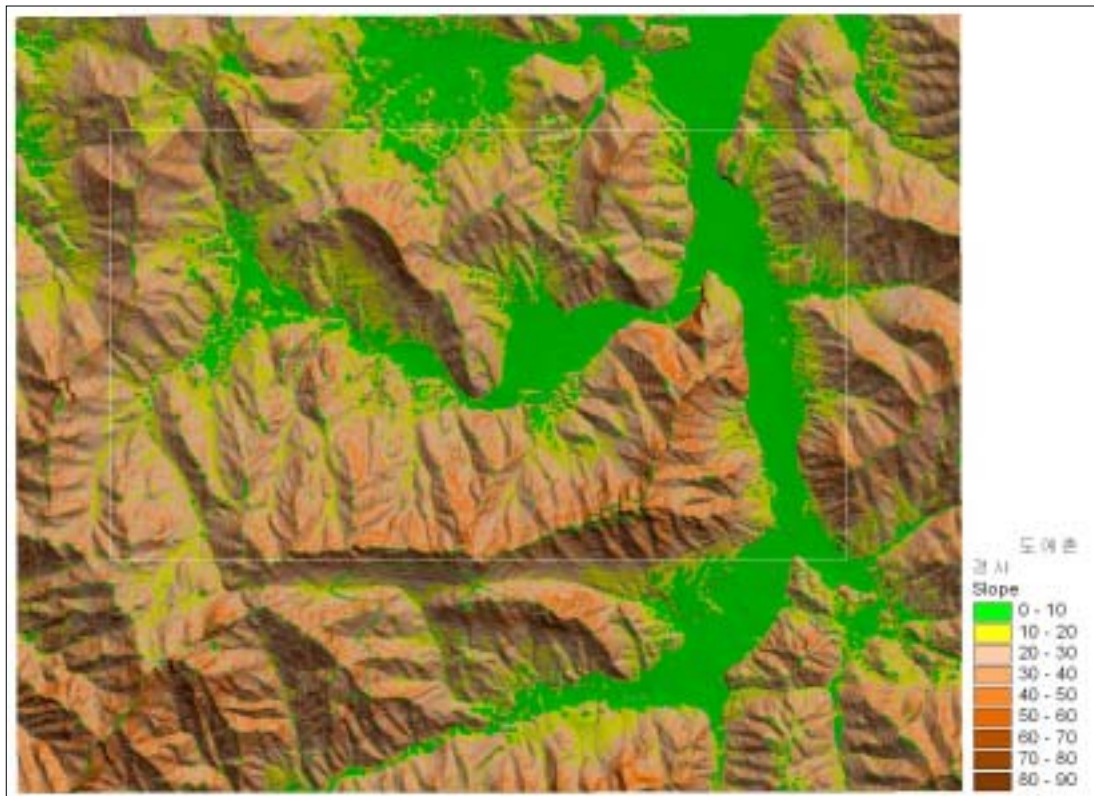
[그림-4] 표고분석도



3) 경사

- 대상지 내의 최고 경사도는 83.45°이며, 50°이상 지역은 277.6천m²이고 시설물 입지가 어려운 30°이상의 부지면적은 4,973.6천m²로서 전체면적의 30.9%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경사 30°이하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69.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연환경을 최소화하며, 시설물 입지가 적합한 경사를 고려한다면 20°이하가 적당한데 이의 면적은 6,104.8천m²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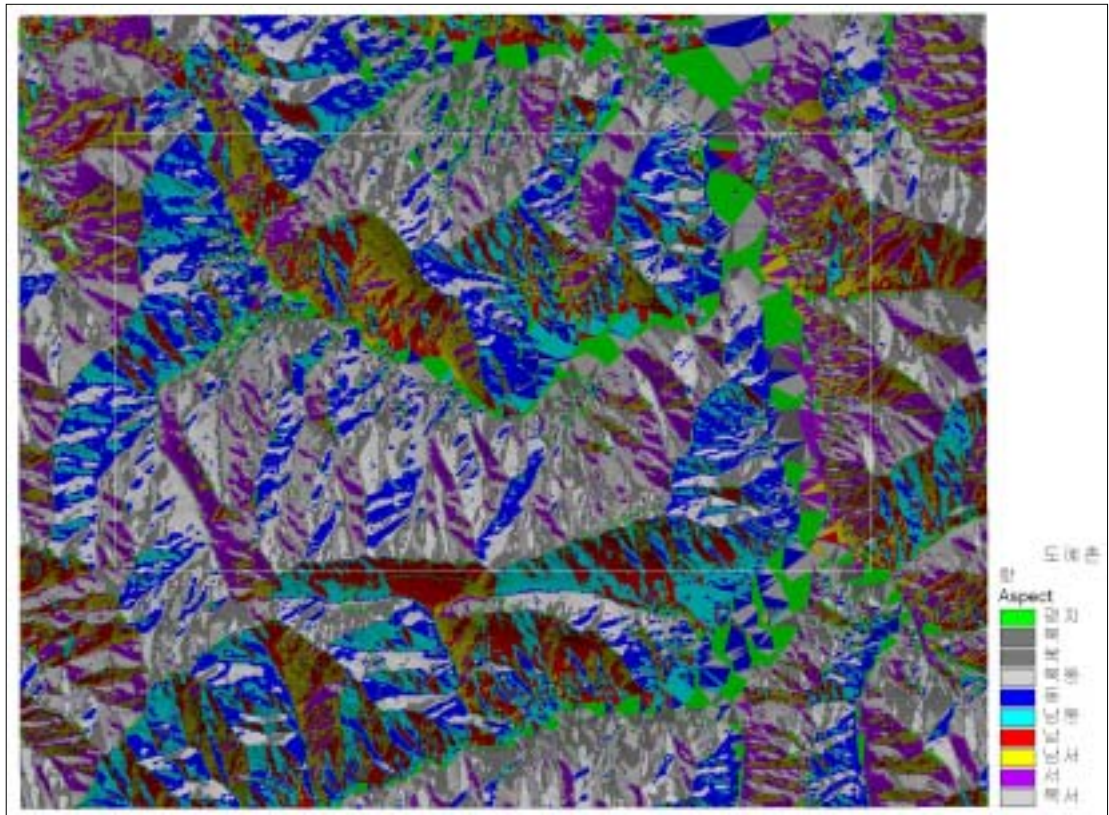
[그림-5] 경사분석도



4) 향

- 상·하신리는 지형상 계룡산 자락에 의한 골로 형성되어 있어 주된 주향이 분포하고 있지 않고 북동, 동, 북, 북서향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건물입지가 분리한 북, 북서, 서향의 지역은 보존적 측면에서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시설물 입지의 남, 남서, 남동, 동향을 취하는 지역으로 하되 경사 및 지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6] 향분석도



5) 경관특성

- 도예촌이 입지하고 있는 상신계곡은 남, 서, 북 방향으로 계룡산에 의해 위요되어 있다. 따라서, 도예촌에서의 시야는 산자락에 의해 둘러싸여 아늑한 느낌을 주며, 전원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시야는 동쪽으로 뜨여 있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V자형 상하신리 계곡을 따라 공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상신리에서 하신리로 갈수록 계곡의 공간은 넓어지고 개방된 공간에 이르게 되며, 용수천과 금배봉에 이르며, 마을가옥들의 입지는 주로 남향으로 되어 있어, 가옥내에서는 계룡산 자락을 뒤로하고 상신리에서는 신선봉, 하신리에서는 장군봉을 마주하게 되어 있다.

3.2 역사적 배경 및 시설일반현황

1) 역사적 배경

- 계룡산 주변지역에는 분청사기를 굽던 여러 도요지가 있는데, 요지의 입지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룡산을 중심으로 소재지로는 25곳, 수량은 29기로서, 시대별로는 고려 4기, 조선초기 3기, 조선중기 이후 27기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상신리는 산동마을의 원형을 간직한 솟대 마을로서 인근



- 14) 계룡산 가마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바 공주 동쪽 동학동에서 중품의 자기와 구이동에서 하품의 자기가 생산되었다고 기재되었으며, 현재의 위치로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사적333호)이다.

2) 도예촌 시설일반현황

- 계룡산 지역의 시설규모를 이천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 열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사자수, 공장등록업체, 전통가마보유수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강진과는 업체수, 종사자수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장 규모, 전통가마보유수 및 도예교실운영에 있어서는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현황을 통해 계룡산 도예촌은 경기도 일원의 이천, 광주, 여주지역과는 도자생산에 있어 상대적 열위에 있어, 도예촌 조성 및 개발에 있어서 지속적 시설정비 및 확대와 함께, 철화 분청사기를 주제로 하여 제품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 도자기 업체 현황 (2003.6월 현재)

구 분	업 체 수 (개 소)			전년대비
합 계	도자기생산업체	전시판매장	도자기관련업체	
16	15 (72.1%)	1 (23.8%)	-	변동없음

※ 참고 : 이천 466개, 강진 24개소

[표-2] 도자기 생산업체 종사자수

계	남	여	비고
20명	11 (55%)	9 (45%)	-

※ 참고 : 이천 996명, 강진 77명

[표-3] 도자기 생산업체 공장등록 현황

계	구분	등록업체	미등록업체	비고
15개		10 (66.6%)	5 (33.4%)	-

※ 참고 : 이천 336개, 강진 12명

[표-4] 도자기 생산업체 자산규모별 현황

계	자산규모에 따른 업체분포		
	1억 미만	1~5억원이하	5억원이상
15 개소	6 (40%)	9 (60%)	-

[표-5] 전통가마 보유 및 도예교실 운영

전통가마 보유현황	도예교실 운영업체
공동: 1개, 개인: 1개	8 개소

※ 이천 전통가마 보유 29개, 도예교실 운영 : 27개소

※ 강진 전통가마 보유 4개, 도예교실 운영 : 1개소

3.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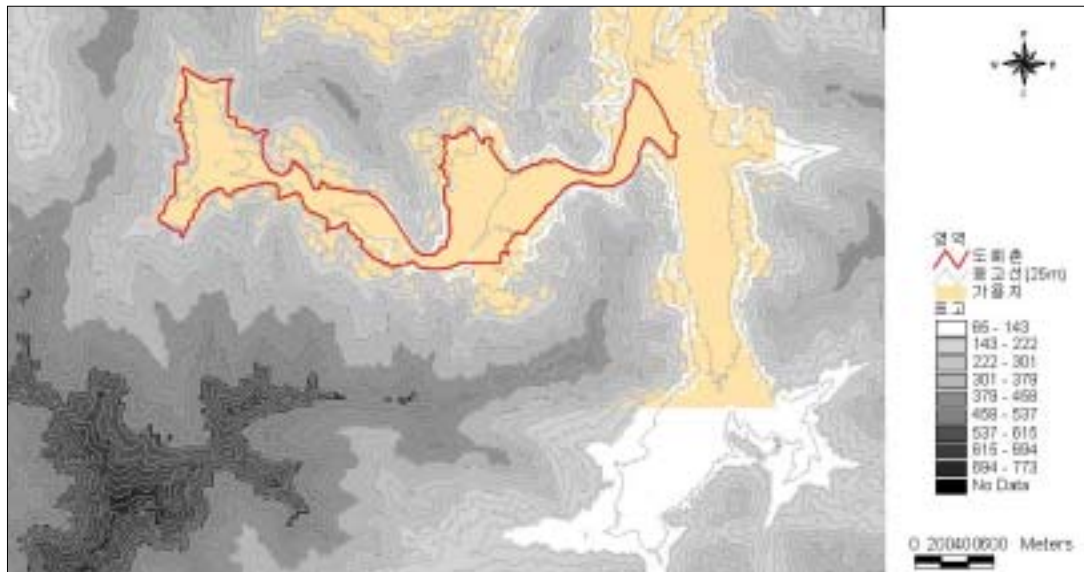
1) 입지적 여건

- 대상지는 우리나라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경기도 이천 및 전라남도 강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도요지 중의 하나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지리적으로는 수도권 및 전국에서 2시간 거리에 있으며, 대전-청주권의 지식정보산업단지, 신행정 수도 건설, 백제·내포문화권 개발과 고속전철 및 도로 인프라의 구축 등으로 개발 여건이 양호한 상태이다. 행정구역상 공주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근접하여 도심근교의 관광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높으며, 계룡시의 승격으로 관광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인접한 계룡산국립공원은 전국적 관광 명소로서 주변에는 유성온천, 조각공원, 산림박물관 등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입지하고 있으며, 대전-계룡산간 폭 4차선의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면 접근성은 더욱 개선되어 개발에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가용지 분석

- 대상지 내의 가용지 분석은 우선 표고, 경사, 향 등을 중첩(overlay)하여 분석하였다. 표고는 주변지역의 대상지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표고를 250m미만으로 설정하고, 경사도는 지형의 변형·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용면적을 분석하였으며, 경사, 향, 표고를 만족하는 가용지 면적은 총 1,645.6천㎡로 분석되었다.



4.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 방안

4.1 기본방향

1) 도예촌 성격

- 계룡산 지역은 이천, 강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도요지 중의 하나로서, 철화기법을 이용한 분청사기의 제작과 함께 일본 최초의 백자를 구워낸 이삼평을 배출한 지역으로서, 모두가 공유하여야 할 역사적 자산이다. 따라서, 계룡산 도예촌은 우리나라 도자의 경제적 수요,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 전통문화의 계승측면에서는 분청사기를 주제로 하여 철화기법의 도예를 전승하는 전통 도예촌으로, 도예인들에게는 작품창조와 생활 도예촌으로, 방문객들에게는 체험·관광의 도예촌으로 될 수 있는 분청사기 체험·관광 도예촌

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2) 조성방향

- 계룡산 국립공원 등 주변과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인 도예촌 조성
- 철화 분청사기 전승과 도예 문화의 창달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
- 테마와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있는 복합기능 공간 조성
-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개발 효과 극대화

4.2 도예촌 조성 기본구상

- 본문에서는 도예촌의 도입시설 및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이용자 수요예측 및 이용권역, 기능에 따른 공간의 성격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이용자 수요예측 및 이용권역

- 도예촌의 개발규모,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이용자 수요예측결과 연간 이용자수는 약49만명, 일평균이용자수는 8,163명, 일평균이용자수는 1,342명, 설계기준일 이용자수는 4,08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용자 계층분석에서 1차 이용권역은 대전, 2차 이용권역은 충청, 서울 등이 설정되었다.

이용권역	이용계층	이용행태
1차 (대전권)	- 가족, 단체, 도예 관련방문자 등	체험, 교육, 문화, 관람 등
2차 (충청,서울 등)	- 관광객, 동호인, 수학여행단 등	관광, 견학, 관람, 구매 등

2) 기능에 따른 공간

(1) 연구·교육·체험공간

- 연구·교육·체험공간의 역할은 특수목적관광의 수요확보를 위해 도예역사 및 철화 분청사기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하고 제작과정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분청사기 연구소, 도예문화관 등을 설립하여 도자기 소재, 제작, 디자인 등의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도입가능시설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도입가능시설	도입기능
철화 분청사기 연구소	- 분청사기 및 철화분청사기를 중심으로 한 역사, 제작기법, 소재 등의 연구
철화 분청사기 문화관	- 계룡산지역의 도자문화의 정립과 홍보
도예학습체험장(아영장)	- 도예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체험을 위한 시설조성 및 프로그램 도입
도예공방	- 현재의 도예작가 및 추후입주자를 위한 도예공방의 확충
실험 작업장	- 도자기와 관련된 제작실, 시험기구실, 실험실을 등 도입
도자정보센터	- 도자산업정보, 관련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2) 공원 · 휴게공간

- 공원 · 휴게공간의 역할은 도예촌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도시근교의 문화공원으로서 방문객에게 휴게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공원에는 전통마당개념의 open-space를 설치하여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에 활력을 부여한다.

도입가능시설	도입기능
도예인의 길	- 주차장과 도예촌을 연계, 도예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하여, 문화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길 - 로면의 포장은 도자기를 활용하여 시대별, 종류별로 포장
도예마당	- 도예촌의 중심광장으로 도예촌의 상징적 공간
이벤트 광장	- 도예촌과 연계된 이벤트 광장
도자조각공원	- 도자기를 소재로 한 콘텐츠 조각 전시 -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도자기를 소재로 동화, 전설 등의 미니어처 전시)

(3) 전시 · 판매공간

- 전시공간에는 입주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시, 도자 관련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전시하는 상설전시 및 영상전시 등을 하여 관람자에게 계룡산 도예 문화에 대한 역사, 수준, 이해 등을 도움. 전시장 인근에는 야외전시장과 입주작가들의 작품 및 서적자료를 판매하는 상설판매장, 기념품 매장을 설치하여 일정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입가능시설	도입기능
계룡산 도예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중국 도자기의 전시를 통한 철화분청사기 특징 전시 - 계룡산 지역의 도자의 특징과 역사연구 - 도자 관련유물·유적·사료 전시
도예전시관	- 지역의 도자 유적·유물전시 및 관련 콘텐츠 상품판매
갤러리	- 유명작가들의 작품전시 및 판매
아트센터	- 도자기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의 전시 및 판매
야외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예촌 작가들 작품을 중심으로 한 작품전시 -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및 사진촬영 장소 제공
상설판매장 및 기념품 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화 분청사기 등 계룡산 지역의 작품을 전시·판매 - 우수도자기를 시중보다 10~20% 할인하여 판매 - 주별 경매제를 도입하여 우수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이벤트 마련

(4) 부대공간

- 부대시설공간은 도예촌의 외부환경의 질과 방문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로서 공공·관리기능을 담당한다.

도입가능시설	도입기능
진입로	- 도예촌으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 및 경관 보행 접근로
주차장	- 단체 및 개별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주차시설 확충
안내시스템 및 보행안전가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예촌 이미지를 반영한 가로안내시스템 및 전자안내시스템 구축 - 보행자를 위한 가로 안전대와 함께 보행자유도형 조명 겸용 볼라드, 벤치, 휴지통 등 편의시설 설치
도예촌 관리사무소	- 도예촌 주차장과 연계하여 도예촌의 외부환경 관리운영을 담당

3)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설정

(1) 도입시설

- 도입시설의 설정은 도예촌 이용자 계층 및 기능에 따른 공간 분석에 따른 도입시설과 주민들의 계룡산 도예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조사하여 교육·체험, 공원·휴게, 전시·판매, 부대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별 도입시설을 설정하고 시설별 규모산정을 하면 다음과 같다.
- 시설별 규모산정은 최대시 이용자수 내에서 시설별로 분배하여 산정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하여 면적을 조정하였다.

[표-12] 계룡산 도예촌 조성을 위한 도입시설 및 규모산정

구분	도 입 시 설	시설별 최대시 이용자수	단위규모 (m ² /인)	시설규모		비 고
				m ²	평	
교육 체험	· 도예 교육관	200	10	2,000	605	
	· 도자연연구소	70	30	2,100	635	
	· 실험공방/작업장	100	20	2,000	605	
공원 휴게	· 도예마당/이벤트광장	120	30	3,600	1,089	
	· 도예조각공원	80	20	1,600	484	
전시 판매	· 도예전시관	100	20	2,000	605	
	· 야외 전시장	80	30	2,400	726	
	· 판매장/기념품매장	50	20	1,000	303	
	· 도공의 집	120	20	2,400	726	
부대	· 주차장(대형)	10	50	500	151	
	(소형)	150	40	6,000	1,815	
	· 야외 작업장	40	20	800	242	
	· 관리사무소	5	20	100	30	
합 계		1,125		26,500	8,016	

(2) 공간별 프로그램

- 도예촌에 있어서 각 공간별 역할과 도입기능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체험공간

- 도예촌에 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개별 공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을 교육·체험행사로 나누고 교과시간표를 1일, 1박2일 코스로 정규화하여 체계적 도예교육 실시 및 도예문화를 보급하며 교육행사는 성격상 시범, 학술, 참여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체험행사의 대상에 따라 학습프로그램¹⁵⁾을 운영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교육 행사	• 도자예술작품 제작 및 시범	시 범
	• 도자예술진흥을 위한 work-shop	학 술
	• 철화분청사기의 역사성 정립 및 제작기법 교육	학 술
	• 도자예술 및 야외소성굽기	참여 행사
체험 행사	• 도자기 체험 교실	일 반 인
	• 전통 물레 교실	일반, 학생
	• 철화로 글,그림 그리기	일 반 인
	• 흙 높이쌓기 대회	일 반 인

● 공원·휴게공간

- 도예마당과 이벤트광장에는 전통마당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을 조성하며 충남·대전지역의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축제의 장을 조성한다.¹⁶⁾ 특히, 사계절 야외 결혼식, 음악회, 영화촬영, 방송 등을 유치하여 장소마케팅 효과를 도모한다.

[표-14] 계절별 행사 프로그램 (예시)

계절	월별	기획행사	전시	교육
봄	3월	도자기 축제	철화 분청사기전	춘계 도예 캠프
	4월	야생화 꽃축제	사진촬영전	
	5월	야외영화제	도자 민구전	
여름	6월	도자기 할인판매	분청사기전	하계 도예 캠프
	7월	여름음악축제	하계 캠프	
	8월	향토풍물제	향토 유물전	
가을	9월	도자기 할인판매	자기전	추계 도예 학교
	10월	단풍제	사진 촬영전	
	11월	학술세미나	도자 산업전	
겨울	12월	송년제	도자 예술전	동계 도예 학교
	1월	눈축제	사진 촬영전	
	2월	신년제	-	

15) 기타 세계 도자 엑스포를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반영하며, 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 행사를 발굴하여 개발한다.

16) 전인수, 월암 도자 예술촌 환경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5.2. p55

● 전시·판매공간

- 도예의 전시는 단순히 도자기의 전시가 아닌 도예 교육, 홍보, 판매 등 도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도예문화창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전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접근과 판매공간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도예촌의 전시는 장소에 따라 실내·외 전시로 구성하며, 기능에 따라 보존, 기획, 상설 등으로 구성하고, 목적에 따라 교육 및 견학을 위한 전시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로 구성한다. 작품 전시는 계절별 행사 프로그램에 맞추어 계절별, 월별로 구성하고, 다른 지역 도예인들과의 교류전시 등을 추진하여, 도자문화의 장으로 조성한다.

전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전 • 국제 도자기 작품 전시회 (일본, 중국, 유럽 등) • 예술성이 높은 도자 공예품 전시·판매 • 계룡 도자의 소리 • 계룡의 울림(사물놀이) 	전시행사장
-------	---	-------

● 부대시설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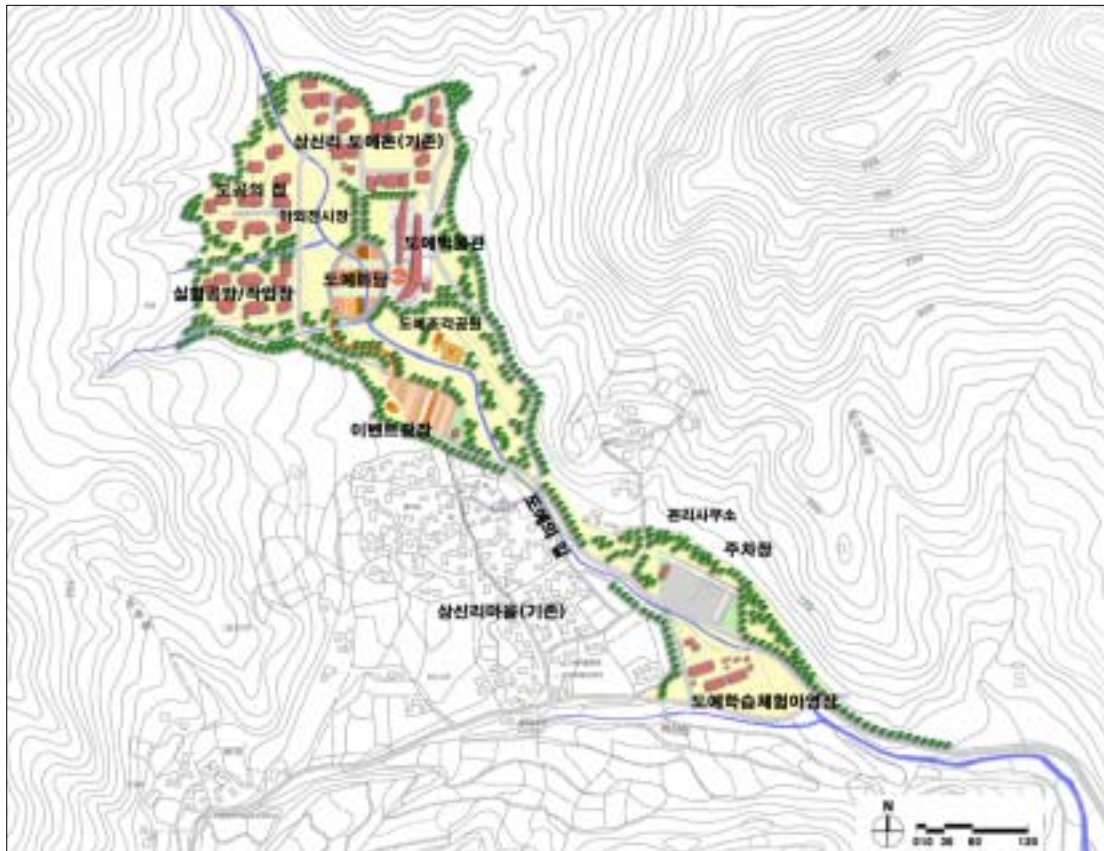
- 도예촌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 부대시설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표적인 부대시설인 진입로, 주차장, 도예촌 내부로의 접근로인 도예인의 길 등은 유기적 연계체계가 확보되도록 한다. 도예인의 길 주변에는 철화 분청 도예의 역사 및 도자 조각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걸으면서 도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차공간 주변에는 도예촌 안내센터 및 관리사무소를 두어 방문객 및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주변에는 배기가스 등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생태환경이 보존되도록 한다.

4) 도예촌 조성 기본구상

(1) 기본구상도

- 현 상신리 도예촌이 계룡산 자락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 조성은 산지구릉지형에 순응한 자연 친화적 배치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주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도예마을을 정비하고, 새롭고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기존의 시설들은 정비하고 관련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 공간별 배치구상으로 진입부에는 주차장과 도예의 길을 조성하여 도예촌으로의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고, 도예의 길 주변에는 이벤트광장, 도예마당, 조각공원을 두고 박물관, 도공의 집을 두어 공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며, 현재 공주학생야영장으로 쓰이고 있는 공간은 야영장과 함께 도예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체험공간으로의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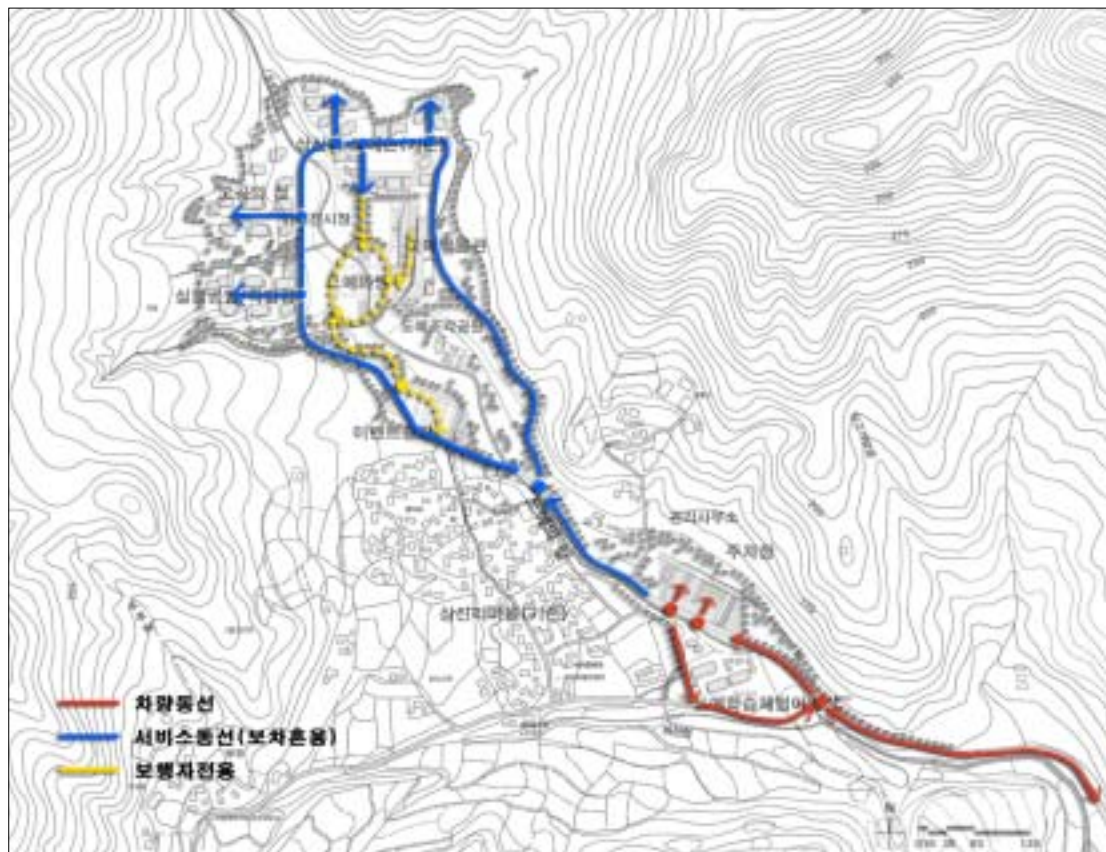
[그림-10] 기본 구상도



(2) 교통동선구상

- 도예촌으로의 진입은 차량으로 하되 주차장에서 도예촌으로의 진입은 보행진입을 원칙으로 하며, 도예촌 관리·유지 서비스를 위한 차량만을 시간제로 허용한다.
- 차량의 주차는 도예학습야영체험장 후면에 조성계획인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체험장 주변에 순환도로를 정비하여 일방순환 통행하여 계획한다.
- 도예촌내의 보행동선은 주차장에서 이벤트광장, 도예마당을 거쳐 도예촌 내부의 환상보행도로망을 구축하며, 도로면의 포장은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 재료인 마사토, 자갈, 소형 블럭, 목재 등을 이용하여 포장한다.
- 또한, 차량동선의 연결 및 보행동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며, 결절부에는 hump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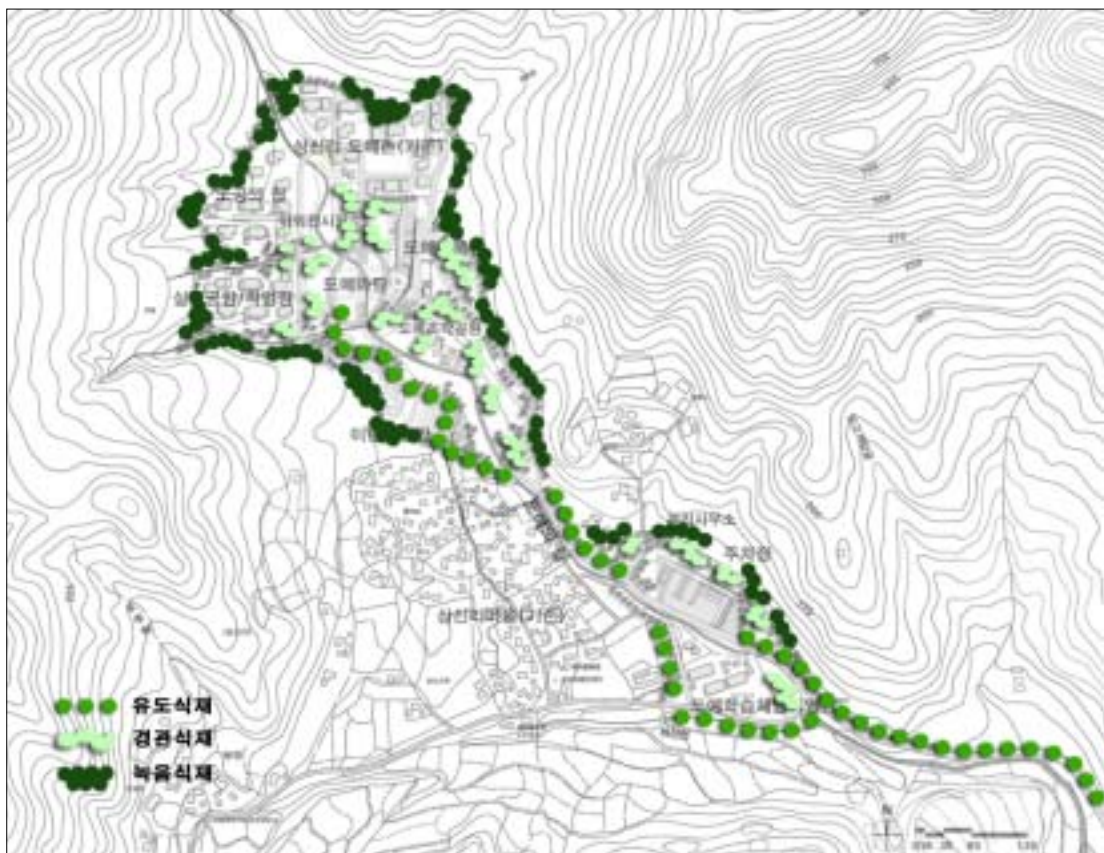
[그림-11] 교통동선 구상도



(3) 녹지체계구상

- 주변 계룡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의 보존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정 및 식재계획 수립한다.
- 수종의 선정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향토수종, 구입 및 이식이 용이한 수종을 선정하며, 식재 방법으로 패턴은 기하학적인 식재를 지양하고 자연풍경식 식재와 함께 기능적으로는 녹음, 경관, 유도, 쉼점식재 등으로 계획한다.
- 시설물 주변에는 녹음수로써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각 시설마다 독특하고 특징적인 화목류 및 경관수로 녹지대를 조성한다. 도로 및 주차장은 공해 및 병충해에 강한 낙엽활엽수로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 대상지 내에 가로지르고 흐르는 실개천은 산책, 휴식, 교육, 문화의 장소로서 생물서식공간임을 고려하여 주변 활동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그림-12] 녹지체계 구상도



4.3 주변자원과 연계방안

- 현재 계룡산 도예촌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수요는 대전·충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시티투어, 온천단지, 백제문화재, 철화분청사기 등 4개 분야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공주시 100배 보기에 문화/성지/휴식부문에 계룡산 도예촌을 알리고 있으나, 시티투어코스 에 관광코스에 제외되어 있는 점과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계룡산 도예촌을 방문하는 것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대전의 관광코스는 한나절형 5코스, 1일형 7코스, 2일형 3코스¹⁷⁾ 등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계룡산 상신리 도예촌을 경유하는 코스는 1일형에 1코스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대상지 위치가 대전에서 30분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예촌의 조성과 함께 관광코스로의 적극적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며, 주변자원과의 연계방안으로 기존관광코스의 개선, 도예촌을 중심으로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셔틀버스의 운행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기존 테마 관광코스의 개선

- 현재 도예촌은 일부 촌의 교통공공시설을 확충한다면 경유관광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특히, 기존의 공주시 테마관광코스에 계룡산도예촌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수요측면에서 계룡산 도예촌은 충남공주보다는 대전권에 비중이 높으며, 계룡산 국립공원, 온천 등과 연계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따라서 대전의 한나절형 관광에 동학사→계룡산 도예촌이 연계된 코스 및 1일형 현재 동학사→공주박물관→공산성→경기장의 코스에 계룡산 도예촌을 포함하여 동학사→계룡산도예촌→공주박물관→공산성→경기장을 경유하는 코스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도예촌을 중심으로 한 관광 루트의 기획

- 계룡산 도예촌은 철화분청사기, 도예, 작가촌 등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테마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설정비의 미흡으로 계룡산, 대전, 공주지역의 경유 관광지로서 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17) <http://www.metro.daejeon.kr> 참조

실정이다. 도예촌에는 주요 테마와 함께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이를 중심으로한 관광 루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3) 관광 셔틀버스의 운행

- 도예촌으로의 접근은 승용차, 하루 6회 운행의 버스, 주1회 대전 시티 투어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만 대상지로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계룡산 도예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및 관광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기적 셔틀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

5. 맺음말

- 21세기 문화는 단순히 인문적인 요소를 뛰어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문화적 가치의 확산정책과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¹⁸⁾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도예촌의 사업추진은 지역개발 및 발전에 있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개발, 친환경적인 개발, 내생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개발, 경제적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개발을 위해 본 과제 이후에 좀더 종합적 개발이 필요하며, 종합개발계획 및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 첫째, 도예촌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 도예촌 입지예정인 공주시 반포면 상·하신리 일원은 국립공원지역에 근접하여 있으며 아름다운 주변자연환경과 잠재력이 큰 관광자원이 근접하여 있다. 이러한 주변잠재자원은 도예촌 조성의 강점이자 기회요인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둘째,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18)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역사마을만들기』 관련 토론회 자료, 2003.3.6

- 계룡산 국립공원의 인접과 주변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반면,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경관 훼손은 지역발전의 발전잠재력을 약화시켜 막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셋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 및 민간재원을 적극적 도입
 - 대상지역에 도예촌 조성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에서 도예촌 조성에 필요한 직간접시설까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정부부처에서 진행중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계획에 민자유치가 가능한 수익성 사업을 계획하여 민간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넷째, 지역민, 지자체 및 중앙정부, 기업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의한 사업추진
 - 도예촌의 조성과 함께 지속적 유지·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의 내생적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이것은 과거에 시행하였던 하향식 사업추진에서 상향식 사업추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계획수립에 있어서 지자체, 지역민의 공동합의에 의한 추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도예촌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대전 세계 박람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도자기 비교/귀향전 - 한국도기의 특징, 미의식과 한국도자기의 역사』, 1993
-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 매뉴얼』, 1999.12
- 임주환외, 『관광지 개발론』, 백산출판사, 2001년 1월 20일
- 가미지카 요시쿠니, 역자 박석희 외, 『미래도시를 여는 테마파크(관광도서시리즈 30)』, 일신사, 1998년 8월 31일
- 이토마사미, 역자 박석희 외, 『테마파크의 비밀』, 일신사, 1995년 8월 1일
- 강무원 지음, 『이사오고 싶은 도시만들기』, 한국능률협회, 1999년 11월 30일
- 이재황,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재료 연구 - 주변재료의 채굴과 실험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동해물과백두산이, 1997년 5월 28일

- 유홍준·윤용이, “알기 쉬운 한국도자사”, 경기도·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2001.8.10
- 박민기, “이천 도예문화공원 환경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9.5
- 전인수, “월암 도자 예술촌 환경설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99.5
- 송희정, “도시근교 전원주택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 계룡산 도예촌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2001.6
- 이재황, 최석원, 채상정, 서만철, “철화분청사기 철화안료로 사용한 석간주 연구”,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2003.2
-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제49회 백제문화제 기념 학술심포지움 “계룡산의 도자문화”, 2003.10.9
- 이천문화원, “이천도예촌”, 1994.8.10
- 산업자원부, “도자기 전문가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2002.2
- 삼성경제연구소, “이천 도자기 클러스터의 현황과 발전전략”, 2002.12
-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행사 이후 국내·외 민간기업 유치구상”, 2000.11
- 공주군, “제1차 군건설종합계획(1992~2001)”, 1999.12
- 공주시·충남발전연구원, “새천년 공주시 장기발전비전”, 1999.12
- 이현식, 김은경, “강화군 화문석 문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송해면 양오리를 중심으로 -”, 인천발전연구원, 1999.12
- 손상락, “지역발전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경남발전연구원
- 월간 환경과 조경,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현상공모 당선작”, 2002. 7, p90-93
- 공간, “다름슈타트의 예술인촌”, 1992.10
- 월간 공예, “카펜스타인의 도자기 축제, 1990.1
- 월간 공예, “전통공예의 계승과 현대 공예의 방향”, 1989.3
- 월간 공예, “한국 도자공방의 변천 과정”, 1989.5
- 월간 공예, “공동 아틀리에”, 1985
- 공간, “안동지례마을 수몰지역 복원계획 -지례창작예술센터, 지례예술촌-”, 1986.6